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 유효성 논란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첫째,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단순화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가정이 사용되며, 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 둘째,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이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도 관련 변수 통제(control) 여부, 축약식(reduced form) 형태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셋째, 경제이론이나 이로부터 도출된 경제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수리적이며, 특정 경제학파의 사고와 주장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임
 - 넷째, 주류 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여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졌고,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경제학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제이론의 결과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상 가능한 경제정책의 간접효과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필요함

1. 배경



-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최근에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이러한 논란과 학파 간 논쟁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본고는 경제학의 한계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2. 경제학의 한계



가. 모형 단순화와 가정 의존적 결론

- 복잡한 경제현상을 모두 반영하여 경제모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강한 가정(심지어 현실과 전혀 다른 가정)을 통해 경제현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는데, 가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 예를 들어, 무역이론 중 비교우위론은 가정에 따라 Ricardo모형과 Heckchser-Ohlin모형, 그리고 확장모형 등으로 구분됨
 - Ricardo모형과 Heckchser-Ohlin모형은 두 국가, 두 가지 재화, 하나(노동) 혹은 두 가지(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를 가정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무역을 할 경우 두 국가의 생산이 증가하여 두 나라가 모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경제이론(비교우위론)임
 - Ricardo모형과 다르게 생산요소가 2개인 Heckchser-Ohlin모형에서는 무역 이후 소득재분배 문제가 발생함
 - 이들 모형에서 국가 수를 늘리거나 재화 수를 늘리면(확장모형) 어느 국가가 어떤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생산요소를 늘릴 경우 무역 이후 어느 생산요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생산요소 중 손해를 보는 생산요소가 최소 1개 존재하게 됨
 - 한편, 위의 비교우위론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가정한 것인데, 불완전경쟁을 가정하게 되

면 재화의 가격이 무역 이전에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국가에 수출할 유인이 발생하여 비교우위와 관계없이 무역이 이루어짐

- 이처럼 강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정확히는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정이 거짓(false; F)이더라도 결과가 참(true; T)이면 조건명제가 참이기 때문임

-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서 명제 P와 명제 Q로 구성된 조건명제의 진리표는 아래 <표 1>과 같음
- 즉, P(가정)가 거짓이더라도 Q(결론)가 참이면 P이면 Q라는 논리는 참임

<표 1> 조건명제의 진리표

P(가정)	Q(결론)	$P \rightarrow Q$
T	T	T
T	F	F
F	T	T
F	F	T

-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가정 가운데 효율적 시장 가설과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합리성 가정은 1980년대 이후 금융 및 재무경제학의 발전뿐 아니라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음
- 이 외에도 ‘모든 소비자의 효용은 동일하다’, ‘세상에 2개의 재화만이 있다’, ‘모든 정보를 가진 설계자 (central planner)가 있다’,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한다’ 등이 대표적인 경제학의 가정임
- 또 다른 단순화는 경제현상을 일반 균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부분 균형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이 경우 경제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수 간 내생성 문제 등도 발생함

나. 실증분석의 한계

-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이론(가설)이 실제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여성의 임금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첫째, 여성의 임금 이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를 통제(control)해야 하는데, 관련 경제변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은 쉽지 않음

- 둘째, 통제가 완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축약식(reduced form)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분균형분석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여성의 경우 임금 상승이 소득효과를 통해 자녀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부분균형) 자녀의 기회비용(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을 높여 자녀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임금 인상이 결혼 여부나 결혼 시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다 고려(일반균형)한 실증분석은 어려움

■ 특히, 198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이론)은 주류 거시경제학 모형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가 충분하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은 항상 내재가치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른 재화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재가치 수준 자체를 분석하지 못함
 -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 여부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변동성 비교로 판단한 윤성훈 외(2018)¹⁾가 효율적 시장 이론의 전형적인 실증분석 방법임
- 이에 따라 Summers(1985)²⁾는 이를 케첩(ketchup)경제학이라고 비판함
 - 시장에서 500ml 케첩 1병이 1,000원에 팔릴 때 1,000원이 내재가치인지에 대해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은 설명하지 못함
 - 다만 시장에서 1,000ml 케첩 1병이 2,000원에 팔릴 때 500ml 케첩 1병이 1,000원이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함
 - 모든 자산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여전히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며 자산가격의 거품 가능성을 파악할 수 없음³⁾

다. 학파적 주장 고집

■ 1960년대와 1970년대 통화주의자와 케인즈학파 간 논쟁은 198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와 뉴케인즈학파 간의 다툼으로 이어져 왔으나 양쪽 모두 금융위기나 자산가격 거품 현상을 설명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함

-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라 시장이 완전하다고 믿는 신고전학파는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통화정

1) 윤성훈·한성원(2018),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 『KiRi 리포트』, 제440호

2) Summers, L.(1985), "On economics and finance", *The Journal of Finance*, vol. 40, no. 3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의 주택가격에 대해 예일대학의 실러(Shiller)는 거품이라고 이미 진단하였으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도입한 시카고대학의 파마(Fama)나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한 당시 미 연준 의장인 그린스판(Greenspan) 등은 저금리에 따른 것으로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책의 경우 뚜렷한 효과도 없고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도 않으나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주장함

- 이들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요 부족이란 있을 수 없고(가격 조정에 의해 수요 공급이 항상 일치), 가격과 수요 변화는 경기순환과 무관하며 경기순환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것⁴⁾이고, 실업은 경기순환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대응(선택)⁵⁾으로 해석함
- 이들은 대부분 미국 내륙지방 대학의 경제학자들⁶⁾로 민물(pure water)경제학자라고 불림
- 이에 반해 뉴케인즈학파는 케인즈(Keynes)가 주장한 것처럼 경기가 수요 부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으로는 케인즈의 주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완화한 모형을 제시하였고 경기 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들은 대부분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 대학의 경제학자들⁷⁾로서 소금물(salt water)경제학자라고 불림
-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학파와 뉴케인즈학파 모두 자산가격 거품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설명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함
- 뉴케인즈학파도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에서 최소한으로 벗어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자산가격 거품이나 금융위기를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었음

■ 자산가격 거품이나 금융위기 등을 예측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여전히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른 학파적 주장을 고집하고 있음

-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만이 사용되었고 재정정책은 시행되지 않아 학파 간 논쟁은 거의 없었음
- 뉴케인즈학파는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음
- 신고전학파는 통화정책 역시 무용하다고 믿었으나 통화정책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 재정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⁸⁾하자 신고전학파뿐만 아니라 뉴케인즈학파로 알려진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를 비판하면서 양 학파 간 대립이 다시 극명해짐
- 오바마 대통령과 뉴케인즈학파인 서머스 등 백악관 경제팀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까지 낮아지자

4)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과 같은 주장이며, 이들은 이를 real business cycle 이론이라고 부름
 5) 이에 대해 크루그먼(Krugman 2009)은 대공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을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쉬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냐고 비판함; Krugman, P.(2009), "How did economics get it wrong?", New York Times
 6)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시카고대학의 루카스(Lucas)와 미네소타대학의 프레스콧(Prescott) 등임
 7)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MIT대학의 블랜샤드(Blanchard), 버클리대학의 로머(Romer) 등임
 8)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미국 의회는 8,300억 달러 상당의 재정정책(재정지출 확대 및 세율 인하)을 지원하는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과시킴

유동성 함정을 우려하여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 신고전학파인 시카고대학의 코크란(Cochrane)은 재정지출이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1960년대 이후 대학원에서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정책을 비난함(Madrack 2015)⁹⁾
- 뉴케인즈학파로 알려졌던 하버드대학의 맨큐(Mankiw)와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Taylor)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함(Madrack 2015)
- 이후 로머(Romer)¹⁰⁾의 실증분석 논문(Romer 2011)¹¹⁾ 등이 발표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 감소함(Madrack 2015)
- 로머(Romer 2011)는 자신이 뉴케인즈학파가 아니며 순수한 실증분석 결과만을 발표했다고 주장하였는데, 1달러의 재정지출이 1달러 이상의 GDP 증가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발간됨
- 이와 함께 경기도 회복되자 2012년 코크란은 재정정책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였지만 여전히 실증분석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학파적 고집을 꺾지 않음(Madrack 2015)

■ 미국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이후 구체적(concrete)이고 실용적(pragmatic)이기보다는 추상적인(abstract) 경제이론으로 둘러싸인 이념적(ideological)인 사고에 기반을 두게 되었고 이것이 잘못된 경제정책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¹²⁾

- 크루그먼(Krugman 2009)은 수학 및 추상적 개념에 대한 경제학의 지나친 의존이 학파적 고집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함
- 로머(Romer 2011)도 자신의 논문 제목 “What do we know about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eparating evidence from ideology”에서도 표현하였듯이 학파적 고집을 우려함

라. 경제학의 신뢰 하락과 대중의 이해 부족

- 주류 거시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짐
- 이러한 가운데 경제학이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자 경제정책이 정치

9) Madrick J.(2015), *Seven bad ideas: how mainstream economists have damaged America and the world*, Vintage Books

10) 뉴케인즈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버클리대학의 로머(Romer) 부인임

11) Romer, C.(2011), “What do we know about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eparating evidence from ideology”, Hamilton College

12) Cohen, S. and DeLong, J.(2016), *Concrete Economic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어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통상정책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3.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경제정책은 경제학 이론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 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경제이론은 단순화된 모형에 기반하여 가정 의존적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경제 정책이 어떠한 가정에 바탕을 두었는지, 가정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함
 - 또한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부분 균형적 시각에서 도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간접효과와 파생효과 등까지도 최대한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함
- 둘째, 실증분석의 한계 측면에서 일부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한 경제이론이나 정책보다는 다양한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된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이 평가되고 시행되어야 함
- 셋째, 경제정책이 특정 이론이나 학파적 고집,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기보다는 실용적인 시각에서 수립되어야 하는데, 열린 마인드가 중요함
- 넷째, 경제학의 신뢰도와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학은 추상적인 모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 정치학, 역사학 등 관련 학문과의 접목이 필요함¹³⁾ [kiri](#)

13) Tirole, J.(2014), Economics for the common g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